

조선산업



그리스 선주, 중국 조선소에 7% 낮은 선가로 중대형 탱커 발주

산업분석

2025. 08. 27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나비오스, 66.5백만 달러로 아프라막스 탱커 발주

그리스 피레우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주사 나비오스는 중국 조선소 저우산 창흥에 척당 66.5백만 달러 가격으로 115K급 아프라막스 탱커선박 2척을 발주했다. 이번 발주 선박의 인도시기는 2027년이 된다. 현재 아프라막스급 탱커선 시장가격은 72백만 달러로 이번 수주선가는 시장 가격에 비해 7.6% 낮은 수준이다. 아프라막스급 탱커선 시장 가격은 올해 초 75백만 달러의 정점을 보인 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저우산 창흥 조선소는 이번 수주계약으로 아프라막스급 탱커선 수주잔고는 28척이 되었고 31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는 상하이안 조선소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많은 아프라막스 탱커 수주잔고를 갖고 있는 조선소의 자리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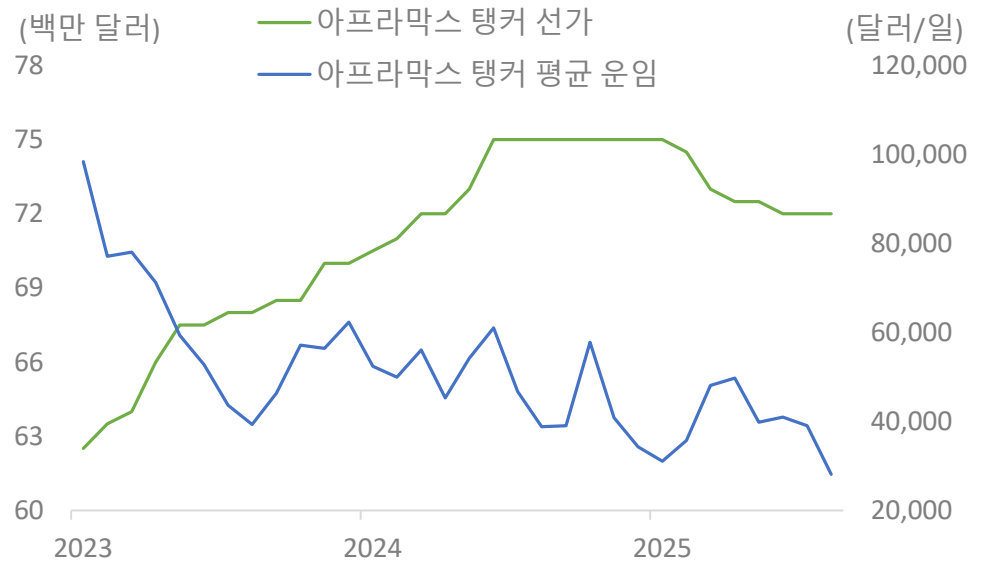
탱커 운임 약세와 선가의 하락

아프라막스급 탱커 선박의 평균 운임은 28,000달러/일 수준으로 1년전의 45,000달러/일 수준에서 크게 내려왔다. 중국의 자국 석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탱커 선박의 구조적인 운임 약세를 불러오고 있다. 운임 약세가 지속되면 선주사들의 선박 운항 수익성이 훼손되며 이는 신조선가격 하락 압력을 높이게 된다. 현재 전반적인 해상운임은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선박 가격은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선박 발주량은 줄어들고 선가는 더욱 내려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이 지배한 아프라막스 탱커선 수주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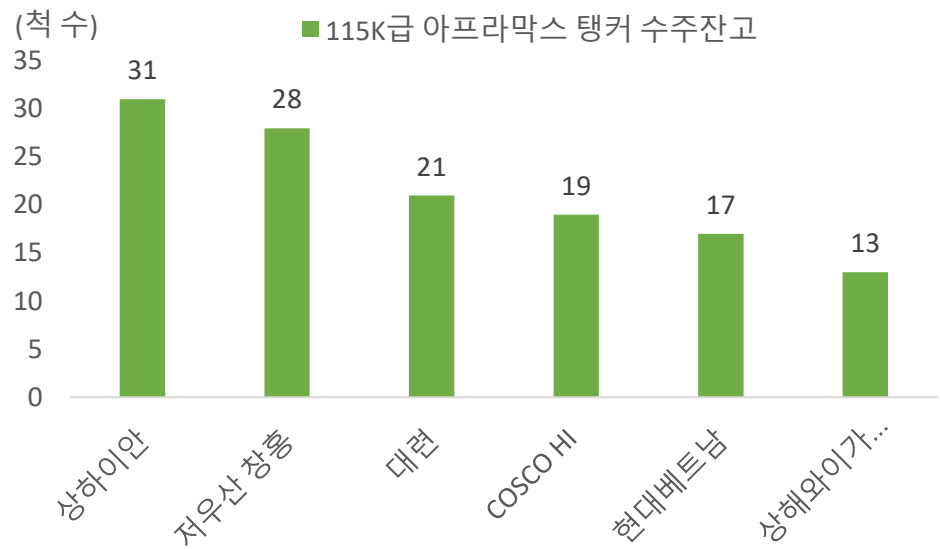
아프라막스 탱커선은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대한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한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이었지만 지금은 상하이안조선, 저우산 창흥, 상해와이가오, 대련조선 등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잔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탱커선박은 벌크선 다름으로 선박량이 많은 영역으로 한국 조선업 수주잔고의 절반 가량을 채웠던 매우 중요한 선종이다. 이제는 중국 조선소들이 탱커선 지배력을 높이고 있어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아프라막스 탱커 선가와 운임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아프라막스 탱커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